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중동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뿐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중동에서 세 차례의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1)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을 고쳐 주기 원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질병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응답과 축복의 기회, 만민 하계수련회!

그동안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국내 외 성도들의 간증 일부를 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권능의 역사, 정말 놀랍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중증 치매가 정상이 되고 에이즈가 치료되는가 하면 뇌출혈을 깨끗이 치료받은 성도들의 행복한 간증.

만민뉴스

제799호 2017년 7월 3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결 복음과 따르는 표적으로 변화의 흐름 일다!

중동 ‘아부다비·두바이·이집트’ 손수건 집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힘써온 우리 교회는 무슬림이 국민의 90% 이상인 중동에까지 활발한 복음 전파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송출되는 이삭 TV를 통한 방송 선교를 비롯해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후 지속적인 파키스탄 선교를 통해 중동에서 활동하는 파키스탄계 목회자들에게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역사가 널리 전해져 중동 선교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가 중동에서 세 차례의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7월 7일(금) 오후, 첫 번째 집회는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생명수교회' (담임 요나스 세가에 제브류엘드 목사)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사진 1, 4). 담임 요나스 세가에 목사는 2015년 우리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 2016년 길태식 목

사를 강사로 손수건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바 있다.

강사 길태식 목사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고전 2:6~9)을 설교하고 잠시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었다. 7년간 안경 없이는 잘 볼 수 없었던 성도가 잘 보게 되고 만성위염이 치료되는가 하면, 한쪽 귀가 안 들리던 성도가 소리를 듣게 되는 등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간증하였다(사진 7).

두 번째 집회는 같은 날 저녁,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의 '왕의 부흥교회'(담임 만주르 바르캣 목사)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사진 3). 길 목사는 '응답받는 비결'(요 5:8~9)이라는 말씀을 증거한 뒤 손수건 기도를 해주어 많은 성도가 치료받았다. 담임 만주르 바르캣 목사는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통해 만민의 사역에 대해 알고 협력하기를 소망해 왔다.

세 번째 집회는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해 7월 9일(주일) 저녁, 오순절교단 소속 '슈브라 오순절교회'(담임 샘드 하나 목사)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일예배 및 손수건 집회로 진행되었다. 길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롬 5:8)를 증거한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사진 2, 5).

6개월 동안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 못하던 성도가 치료받아 지팡이를 버리고 성전을 걸어 다니며 영광 돌렸고, 난청이 치료되는가 하면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10년 이상 손에 무엇을 쥌 수 없었던 성도가 정상이 되어 마이크를 쥐어 보이며 기쁨으로 간증했다(사진 6, 8).

이날 집회에 참석한 오순절교단 밀레드 유세프 목사는 "2014년 길태식 목사님이 인도한 세미나 시 임신하지 못하던 무슬림 여인이 손수건 기도를 받고 잉태되어 여아를 출산했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행복한 소식을 전했다.

이집트 오순절교단 총회장 아테프 포에

드 목사는 "집회를 통해 권능의 역사와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것을 목도했다."며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총회장 에브리암 하나 목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다."며 길 목사와 선교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7월 10일(월)에는 이집트 오순절교단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12일(수)에는 카이로에 거주하는 만민파운데이션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있었다(사진 9, 10). 만민파운데이션(설립자 아지즈 모르간 목사)은 성결의 복음만이 이집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저서 등 다양한 매체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이집트에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두루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성결의 복음과 따르는 표적으로 중동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거대한 영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1)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가라사대 너희가 ...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26)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모든 질병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과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성경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앓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문둥병을 비롯해 각종 질병들이 치료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목도했다 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열두 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걸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 결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용신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들것 채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일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받는다 믿음이 있었

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렘 32:27).

우리 교회에서는 에이즈, 백혈병, 각종 암 등의 불치병, 난치병이나 폐병, 디스크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를 늘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부러진 뼈나 끊어진 인대가 온전해지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지요.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살 가망이 없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한 이도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신속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할 때는 설교 후 단에서 전체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2. 질병의 원인

1) 범죄로 인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나 고통, 재앙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병균과 바이러스, 병을 옮기는 더러운 것들이 생겨났지요. 결국 아담의 범죄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병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총칭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처럼 매우 드문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영광 돌리는 섭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질병과 연약함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선천적인 연약함을 해결받으려면 가장 먼저는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

아오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니 그 즉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의 질서를 어긴 경우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일들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한계 이상으로 몸을 혹사하거나 불규칙한 식사습관으로 과식이나 폭식하며 영양을 잘 섭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니 지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술이나 담배처럼 몸에 해로운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해 계속 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며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3) 신경성, 정신적인 요인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나 아주 심한 분노나 미움, 슬픔 등을 눌러 참을 때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화병 등 신경 계통이나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고 몸의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연약해 생각과 마음을 내어줌으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병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혐기, 감정이 있으니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치 못한 것이니 회개해야 합니다.

4) 원수 마귀 사단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경우를 말하며, 신체장애나 질병 중에도 원수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이 여기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여파가 3, 4대 후손에게까지 이어져 질병, 불구,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 등의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자녀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킴을 받습니다.

이 밖에 조상이나 본인이 악을 심히 행한 경우에도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간혹 ‘믿는다’ 하면서 심히 악을 행하여 한계선을 넘는 경우도 있지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없다면 성전에 나오지 말고, 가족이 대신 사랑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권능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재창조하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2016 만민 하계수련회

매년 8월 첫주에 개최하는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에이즈, 우울증, 심장마비, 뇌출혈, 치매를 치료받고 실명된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등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일부를 소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의식불명에서 깨어나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 69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 자스완트싱 성도



저는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로 인해 우울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또한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15년간 약을 복용했는데, 2016년 8월 2일(화) 증세가 심각해져 입원하게 되었지요. 이튿날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질 정도로 상황이 위급해서 큰딸을 통해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계신 한정희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

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님께 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8월 7일 주일 새벽, 저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담임목사님이 같은 시간, 제 이름을 손바닥에 적고 믿음으로 당회장님과 약속하실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제가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일반실로 옮겨졌고 그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었으며, 우울증은 물론 불면증까지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2017년 1월에는 손자인 손(11세)이 코뼈가 자라는 희귀병을 당회장님의 시공 초월한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 감사하여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명된 왼쪽 눈을 치료받아 삶에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 52세, 1세대 4교구 | 박상영 성도



저는 1990년 7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왼쪽 눈의 실명으로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운전할 때에는 왼쪽 백미러를 볼 수 없어 사고도 몇 차례 났지요.

그런데 2016년 8월 8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장소인 무주 덕유산리조트에 늦게 도착한 저는 교육장인 점핑파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생방송으로 참석하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왼쪽 눈이 시원한 느낌과 함께 환해졌고, 이후 빛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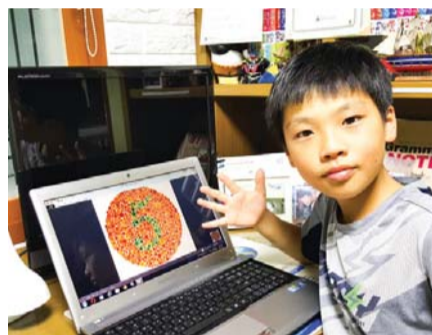
얼마 뒤 9월에는, 왼쪽 눈 교정시력이 0.15로, 올해 2월에는 0.2까지 나와 점점 호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뇌수술 후유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졸피뎀(수면제)을 수년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부작용도 있어 끊으려고 했지만 중독되어 쉽지 않았지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거나 악몽을 꾸고 공포를 느끼는 등 신경질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녀온 후부터는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고도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왼쪽 백미러도 보고, 1종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잘 자니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던 모습도 사라졌으며,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니 정말 기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의학적으로 근본 치료가 불가능한 색약을 치료받았어요” | 13세, 마산만민교회 | 천정우 아동



2016년 5월, 저는 안과 검진 결과 색약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눈 때문에 장래에 한해서, 항공기조종사, 의사 등의 직종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니 살짝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저는 치료받을 수 있는 만

민 하계수련회가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님, 동생과 함께 응답받으자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8월 8일, 수련회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실 때 눈에 손을 얹고 받았어요. 순간 단에 있는 불빛이 밝게 보였고,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어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색약테스트를 했지요. 그러자 예전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숫자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할렐루야!

현재 저는 교회에서 아동주일학교 학생회 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분이 되는 어린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연습을 하다가 회장염을 치료받았어요” | 61세, 3세대 24교구 | 이해숙 집사



2016년 7월 말,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당회장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으면 통증이 가라앉곤 했지요. 저는 만민 하계수련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3세대 공굴리기 선수로 선발되었기에 8월 2일, 몸이 무거운 상태였지만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8월 3일(수) 새벽,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한 결과, 의사는 회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맹장 옆에 위치한 회장에 염증이 심하고 농이 많이 차서 주변에 다른 장기가 안 보일 정도이기에 복막염이나 패혈증이 올 수 있으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급히 다음 날로 수술을 잡았고,

저는 '왜 질병이 내게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 고질적으로 불평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자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체육대회 연습을 한 후 집에 돌아와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잠에 들었지요.

8월 4일(목) 아침에 일어나 설사를 했는데 푸른색 변이 나왔습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고 온몸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저는 병원 검진을 통해, "회장염 증세가 사라졌으니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확답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올해 수련회에도 저는 공굴리기 선수로 선발되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 CT촬영》》

◀ 기도받기 전 회장 부위가 염증이 심해 부어있고 주변에 고름이 끼어 있음.

◀ 기도받은 후 염증이 사라지고 부었던 장벽이 정상으로 회복됨.

“중증 치매로 고통받던 아버지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 35세, 대만만민교회 | 최이쓰썬 성도

2013년 2월, 저는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대만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 뒤 어찌하든 기도하며 변화되고자 힘썼습니다. 또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니 가정이 복음화되고, 알레르기성 안건염을 치료받는 등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였지요. 그러던 2016년 6월 27일, 아버지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시더니 다음날부터 화를 내시고, 웃도 입지 않으시는 등 이상한 말과 행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7월 20일 병원 진단 결과, 중증 치매였습니다. 가족이 21일 다니엘철야 기도를 작성하고 금식하며 환자기도를 받고 난 뒤, 아버지는 화내는 일도 줄고 점차 안정을 찾으셨지요.

저는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차 한국에 가서 아버지의 사진과 병명을 단에 올려 8월 7일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주셨지요. 예배 후 어머니와 통화해 보니 그동안 드시지도 않고 잠만 주무셨던 아버지가 오후부터 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날인 8월 8일, 아버지는 대만에서 인터넷으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으셨는데 이후 기억력이 되살아나면서 예전의 증상들도

모두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9월 20일, 병원 진단 결과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권능을 체험케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병원 진단서



불치병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좌), 기도받은 후 CDR 점수가 1점으로 치매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병원 진단을 받음(우).

“급성 뇌출혈을 치료받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 55세, 2대대 12교구 | 김진희 권사



2016년 7월 31일(주일),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며 오른쪽 몸의 감각이 약간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8월 1일(월) 밤 11시경에야 확인차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찾아가셨습니다. CT촬영 결과, 뇌출혈이었지요.

의사는 “30시간이 경과돼 약물 치료나 수술도 할 수 없고 급성이라 또 뇌에 출혈이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라고 했고, 저는 밤새 집중 치료실에서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뿐이었습니다.

8월 2일(화) 아침, 의사는 제게 “이런 상황이면 의학적으로는 비정상이 되어야 맞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이네요.”라며 놀라워하였고, 저는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3일(수)에는 감사하게도 산상기도에서 내려오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나아가 기도받을 수 있었고, 특송기도도 받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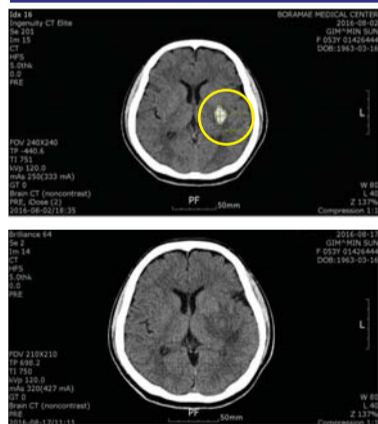
4일(목) MRI촬영 결과, 여전히 출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이 하나

도 제게 나타나지 않으니 의사는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특송이 잡혀 있어 노래를 한다고 하자 의사는 깜짝 놀라며 “정말 노래만큼은 안 됩니다. 뇌에 압이 올라가고 다시 출혈이 생기면 그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며 간곡히 당부했지요. 하지만 5일(금),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특송을 위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예배 시 하나님 은혜로 특송을 잘 마쳤지요(왼쪽 사진).

8월 8일(월)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17일(수) CT촬영 결과, 출혈이 깨끗하게 스며들었으며 몸의 모든 기능도 신기할 정도로 정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 CT촬영



◀ 기도받기 전 좌측 대뇌핵 부위에 2cm 크기의 출혈이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출혈이 사라짐.

“에이즈로 죽음 직전에 있던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 66세, 민주콩고 킨샤사만민교회 | 밤파 셀라 오메르 성도

저는 에이즈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고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모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을 전

해 주셨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지요.

2014년 10월, 킨샤사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회장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치료받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각종 예배 및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더니 몸에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온전히 치료받고자 GCN 녹화방송을 통해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동참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 몸 전체가 아주 뜨거워졌지요.

그 뒤 다리의 심한 통증이 사라지고 천근만근이던 몸이 가벼워졌으며,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 몸은 눈에 띄게 호전되어 반점과 상처가 싹 사라지고 예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만민교회 충남 사산시 잠동5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76-101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